



문화매일신문



제1540호

2024/ 2/ 28/ 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세상을 향한 청년들의 도약, 경북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여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 시키고, 입사 초기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경상북도와 8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상주, 영천, 경산, 청도, 예천)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행한다.

경상북도는 미취업 청년 및 입사 초기 청년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시군 청년센터 활용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해당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참여 시군과 긴밀히 협조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억 원이 미취업 청년과 입사초기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경력(재)설계 ▲취업위빙업 ▲사회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지원 ▲1:1 심리상담 등 약 20시간 내외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다문화, 이주 정착, 귀농 귀촌, 경력 단절 등 지역별 청년 현황에 맞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 전문가와 1대1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소진에 따른 구직 단념 부분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청년고용정책과 연계 및 참여자의 취업 상태 관리 등 후속 지원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총괄적인 사업 관리로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의 구직 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 시군은 지역별로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후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3월 중순부터 시군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도내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구직 단념 청년 및 지역별 별도 기준에 따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지역별 상세 내용은 참여시군(김천, 안동, 구미, 상주, 영천, 경산, 청도, 예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멋진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상북도와 8개 시군은 지역 현실에 딱 맞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공공도서관 최고 인기 대출 도서는?

'불편한 편의점' 2022년에 이어 2023년 경기도 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로 등극

지난 한 해 경기도민이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 본 책은 1만 5,437권의 대출 수를 기록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나무옆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도서관 정보나라(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를 통해 2023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4,1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도서대출 2위는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창비), 3위는 이미예 작가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이 뒤를 이었다.

4~10위에는 '아몬드'(손원평, 창비), '밝은 밤'(최은영, 문학동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클레이하우스), '작별인사'(김영하, 북복서사), '고양이 해결사 감냥'(홍민정, 창비), '흔한남매'(흔한남매, 미래엔), '지구 끝의 온실'(김초엽, 자이언트북스)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2023년 최다 대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국문학이 차지했다. 2022년 대출 상위 10개 도서에 한국문학과 해외문학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 작가들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령별 대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기도민의 연령대별 관심사를 가늠할 수 있었다.

20대에서는 김초엽과 정세랑의 도서가 각 2개씩 10위권에 올라 젊은 여성 작가들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연과학 도서로 분류되는 블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2위)가 자리를 잡은 점도 눈에 띄었다.

30대는 안녕달의 '수박 수영장'(5위)와 '당근 유치원'(7위)와 같은 유아 도서와 어린이 도서의 선호가 높았다. 또한 오은영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6위)와 같은 육아 도서 또한 인기를 끌었다.

40대는 전체 대출 순위에서 큰 영향을 미친 세대로 나타났다. 대출 상위 5위 도서 대출 건수의 39% 가량을 40대가 기록했다. 40대의 대출 성향에 따라 전 연령대 최다 대출 순위가 좌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50대에서는 경영 분야 도서가 강세를 보여 자칭의 '역행자'(7위), 김승호의 '돈의 속성'(9위) 등이 순위에 올랐다. 60대 이상에서는 건강을 주제로 다룬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5위)과 윤리를 주제로 다룬 김혜자의 '생애 감사해'(8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성별 대출 데이터에서는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의 기호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대출 상위 10개 도서 중 9개가 소설, 1개가 자연과학 분야였으며, 남성의 경우 소설을 포함하여 경영, 철학, 역사 등의 분야였다.

경기도민들은 독서의 계절인 가을보다는 여름인 8월과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평일보다는 주말에 책을 많이 빌려 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월별 도서 대출은 8월(9.4%) ' 1월

(9.2%) ' 7월(9%) 순으로, 요일별로는 일요일(18.5%) ' 토요일(18.1%) ' 수요일(16.4%) 순으로 높았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독서 문화 향유를 위해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2023 경기도 공공도서관 베스트 도서

순위	도서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불편한 편의점	1	1	1	1	1
2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2	2	2	2
3	아버지의 해방일지	3	3	3	3	3
4	달려구트 꿈 백화점	4	4	4	4	4
5	80세의 벽	5	5	5	5	5
6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6	6	6	6	6
7	역행자	7	7	7	7	7
8	생애 감사해	8	8	8	8	8
9	돈의 속성	9	9	9	9	9
10	지구 끝의 온실	10	10	10	10	10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연장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날개

025년 3월까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무비자입국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승인을 받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통한 공황 활성화 및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 나라를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광주·전북·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으로 1년간 3개국 인바운드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으로 꾸준히 해당 국가 전세·정기선을 유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베트남 관광객 50여 명을 시작으로 4천여 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BC카드사에서 발표한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 전남 카드결제 건수가 전년보다 303%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무사증 제도와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 설명회, 전세·정기선 유치 등 전방위로 노력한 것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및 정기·부정기 노선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일상회복(엔데믹) 이후 국제관광이 활발히 움직이는 가운데 해외관광객 맞춤형 체류상품을 확대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완도 해양치유센터, 목포 오션호텔 등 전남에 새로

은 관광명소가 생겨남에 따라 신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의료공백 총력대응'... 서울시립병원에 의료인력 긴급 채용 지원

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시립병원 의료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예산 긴급 투입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 중심에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건비를 긴급 편성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지원해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시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8개 시립병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현장의 인력 공백 등 어려움을 논의한 뒤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시니어 의료진 등 가능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공병원이 역

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각 병원별 의료진 정원관리와 유연성을 뒤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인력 긴급채용 지원은 현재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번아웃되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 입원전담의 등 병원 필요에 맞게 일반의 등을 긴급채용 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의 3개 시립병원에 45명의 의료진 충원을 목표로,

사태 추이에 따라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은 재단관리금 26억 원 규모다.

서울시는 현재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황임을 고려, 채용인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인력을 긴급채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절차를 단축해 가장 빠른 시기에 채용되도록 협조하고, 채용되는 대로 바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역량을 총동원해 8개 병원은 기존 18시까지 운영했던 평일진료를 20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유지해 차질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 발생시 항상 서울시립병원은 최일선에서 대응했으며 이번에도 공공병원으로서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서울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지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지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부산시의회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

의원연구단체 '행부디' 주최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 발족식 및 토론회' 열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대표의원 김광명(남구4, 국민의힘))'가 주최하는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 발족식 및 토론회'가 2월 23일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명 대표의원을 비롯한 행부디 소속 의원들과 부산시 김광희 경제부시장, 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식 회장,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회장, 시의회 및 시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발족식에서는 행부디 출범을 축하하는 김광희 경제부시장과 서무성 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효정 의원(북구2, 국민의힘)의 연구회 운영방안 보고가 있었다.

2부 발제 및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시민 행복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의 여는 말로 시작하여 배기범 부산디자인진흥원 본부장과 박영심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이사장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 특성과 문제에 따라 필요한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지역 분석과 진단을 통해 맞춤형 디자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기범 본부장은 15분도시 부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과제와 이슈에 대한 발표에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계획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산시 결집 분야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연구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박영심 이사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부산지역의 차별화된 산업아이템 발굴 및 디자인 인재 육성, 부산형 디자인 산업 정책 수립, 산·학·연·관 교류를 통한 지역 디자인 산업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두 번째 주제인 '부산시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정책 방향'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의 여는 말로 시작하여 이정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최민준 부산디자인진흥원 팀장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양준모 의원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시 서비스디자인 조례를 언급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모델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공감 디자인단의 성공적인 활동 사

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교수는 정책 디자인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서비스디자인 활동 사례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인이 함께 디자인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디자인이 가지는 의미임을 설명하고 부산 시민공감 디자인단 활동 성과와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최민준 팀장은 지난해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치안리빙랩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디자인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 공폐가 관리, 흡연을 감소와 쓰레기 투기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노담지대 프로젝

트 등 운영 성과를 제시하며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서비스디자인 확대 도입할 것과 16개 구·군 및 공사공단 시민공감 디자인단 도입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행부디 대표 김광명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공공디자인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임을 밝혔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서비스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 제도의 기반을 다진 만큼 앞으로 시민을 주제로 한 디자인도시 부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활발한 행부디 연구활동을 통해 환경, 산업, 안전, 주거 등 부산의 주요 현안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디자인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김원규 의원, 테크노초등학교 개교 점검에 나서!

수업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주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6일(월) 오전, 3월 1일 개교하는 달성군 유가읍 소재 대구테크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점검에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구축 현황 등 수업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신설

학교인 만큼 등·하교 시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테크노초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18학급(일반 9, 특수 9), 초등학교 18학급(일반 16, 특수 2) 규모로 개교한다.

윤근수/기자



경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최

2월 26일(월)부터 3월 4일(월)까지 8일간 개최

경산시의회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기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추진", 권중석 의원은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권중석 의원을 선임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협력하여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광삼/기자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 방지 주문

2023년 신월여의지하도로 오진입 사고 39건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14건의 약 3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와 이태원사고 이후 시스템을 정비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3m 이상의 대형차량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처리 시간도 건당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어 유료로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7Km 이상의 터널 내에서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

지는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의 사전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외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높이제한 안내시설, 높이제한 충돌시설을 설치하여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이태원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개선하여 121대(2024.1.기준)의 단말기를 서울시시장 단 및 주요 부서에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매주 10여 회씩 실시하는 정기교신 응답률이 100%에 이르지 못하고(2023.12. 기준 95%) 있는 점도 보완을 주문했다.

최광수/기자



이천시의회, "조례 질적 향상" 기대감 보여

올해 두 번째 입법설명회 개최

이천시의회가 2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에 앞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의원 의원인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

242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발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회 선성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공영장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설공사 방지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다.

한편,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광고국: 1899.96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경원 직원의 처우 개선돼야

김선영 의원 "안전상의 이유로 사경원 업무공간 이전은 당연, 그러나 업무공간 축소에 따른 직원의 처우 문제 고려해야"



따라 도의회 동기가 필요한 상황이 었다.

김선영 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개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소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간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평(978.32㎡)이지만 신관은 107.9평(366.9㎡)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실상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마을공작소 관련 추진사항 점검



난 8일,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됐으나 아직 개방되지 않은 마을공작소개방을 시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고양시가 업무를 추진하며 발생하는 고충을 경청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거점시설-주민 커뮤니티 용도"로 사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을공작소와 인접한 고양리 새마을회 소유의 공간과도 연계하면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마을회 공간에 아이리브맘 카페가 들어와 있으나, 고양시에서 올해 카페를 정리할 예정이라 두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구 특성을 고려한 노인급식소 등 노인복지 시설과, 초등학교 인근임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년 돌봄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인프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특히 고양초에서 학생 돌봄공백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논의가 지속되는 만큼, 시에서도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 또한 주민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며 꾸준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직접 국방부 상대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에 관한 사항과 주한미군에게 공여됐거나 공여되어졌으나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및 활용 문제 등에 대한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북부지역의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의 종류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 통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이 있다. 먼저 군사분계선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10km까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통제를 위해 민간인통제선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제한보호구역이 민간인통제선의 남쪽 25km범위 이내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쪽 지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이 구역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비행안전구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있는데, 군용기의 이착륙에 있어 안전비행과 대공방어작전 보장을 위해 이 또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특히 건축물 건설시 일정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도록 고도제한 규제가 존재한다.

윤종영 의원은 이러한 군사규제의 조정과 건의 및 통제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군사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소통하

고 업무 채널을 갖춰야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전사령부급 수도군단이나 야전사령부급으로만 한정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영 의원은 국방부 조직 특성상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로 시달하는 탑다운(Top down)식의 업무방식이 강한 조직이라고 역설하며, 2022년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제4차 본회의의 5분자유발언에서 설명했듯이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장관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와 경기도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추진해줘야 경기도의 시·군들은 국방부와 각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작년에 일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느 정도 군사규제완화 추진에 일부 전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아직 갈길이 멀기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과 업무에 대해 잘 소통하여 관련 업무에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에 관하여 언급했는데,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관련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004년 10월 26일에 주한미군기지 통·폐합관리 계획에 의해 경기도내 34개의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총 211km² 공여구역 중 약 82%인 173km²가 반환대상 공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된 면적은 72km²로서 여기서 41.505km²만 반환 완료됐다.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고 하고 현재 공여구역 중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은 불과 19.6%일 뿐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밖에도 부속 개념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미흡하고 종합적이지 못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련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각각 구분해서 앞으로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많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개념들이 복잡함을 토로하며, 현재 반환대상이 아닌 공여구역 중에도 주한미군이 활용하지 않는 구역은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경기도가 반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에 대해 신속한 반환절차를 완료하여 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을 특별히 지원 및 개발하는 계획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현행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주민피해방지 지원부문의 보완책으로만 국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면서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됐던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미반환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예정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월 5일에 대표발의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도민의 입과 귀가 되어 더욱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3일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해 7월에 통과된 전국 최초 조례인 '경기도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도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 중심의 민생 입법 활동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0회를 맞이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

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학술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가 선정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은 제11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의 복지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고 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안양 제4선거구(관왕동·달안동·부림동·인덕원

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양초(33회), 신안중(3회), 양명고(12회),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의 학력과 ▲ 전) 안양시 농구협회 회장 ▲ 전)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장 ▲ 현) 제11대 경기도의원 ▲ 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 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TF 위원장 ▲ 현) 경기도 의정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현) 경기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등의 경력으로 ▲ 2014년 민주평통 대통령 의장표창 ▲ 2017년 안양시민대상 표창 ▲ 2019년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 2022년 법무부장관상 표창 ▲ 2022년 경기의정대상(매니페스토 부문) ▲ 2023년 기초자치의정대상(공약이행 부문) 등을 수상했다.

김범상/기자

영양 들려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깁니다 영양으로 오세요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계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살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재박물관, 반딧불이전당,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양문화박물관, 용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이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이천시가 2월 23일 지역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방안 모색을 위해 여행업계 관계자 및 민·관 관광 네트워크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주)여행버스, 모두투어 인터내셔널, 한국신태창 여행사 등 인바운드여행사와 하나항공 여행사, 크리스토알여행사, 즐거운 여행사, (주)미리내여행, 홀인원투어 등 관내 여행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1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 관광 네트워크 협약업체들중 별빛정원우주와 테르메인,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천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삼과 쌀, 딸기, 복숭아 등 이천시의 우수한 특산품을 활용하여 체험활동 등 관광상품화하여 365일 상시 관광객들이 방문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 △산업체관광강화(농업, 축산업, 반도체, 주류제조 등) △국내·외 홍보 지원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관광상품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천시(관광과)는 관내 관광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행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여 이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광사업체 간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1000번 입석금지 관련 대책 마련해 교통 혼잡 해소

2층 전기버스 5대, 출근시간대 전세버스 2대 투입 및 중간배차 6회 투입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서울로 출근하는 직행좌석버스 1000번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층 전기버스 5대, 전세버스 2대, 중간배차 6회를 투입하여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월 20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상류부(일산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되어 하루(덕양구간) 시민들이 탑승하지 못하는 교통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입석금지로 문제가 제기됐던 1000번 직행좌석버스는 대화역(일산), 행신(덕양), 승례문(서울)까지 운행하며, 지난 1월에만 약 55만 명의 고양 시민이 이용한 핵심 노선이다.

시는 위와 같은 민원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 증차사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 19일부터 추가로 전세버스 2대(2회)를 투입하여 운행 중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입석금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 대비하여 1000번 버스 2대 증차(40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중간 배차 6회(고양경찰서 3회, 행신초교 3회)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출근시간대 이용객이 몰려 행선동 근교 정류장에 무정차함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어, 또다시 대책을 세우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00번 버스가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이후에도 중간배차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현행대로 중간배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라며 "덕양구 시민들의 출근 걱정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한시를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통은 도시의 대동맥으로 시원하게 뚫려야 도시가 건강한 것이며, 시민들의 뺨 뚫린 출퇴근길을 위해 앞으로도 GTX-A노선에 개통될 때까지 전세버스 투입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기/기자

광주시, 2025년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 접수

광주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50일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신청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내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제안서작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 주민 편의사업 등으로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모분야(40억원)와 일반분야(60억원)로 나눠 진행되며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의 사무,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회의 및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총 267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주민투표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27개 사업, 6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김범상/기자

2024년 광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지금 시작!

모집기간
2024. 3. 4.(월) ~ 4. 29.(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시 홈페이지 (www.gjcity.go.kr)
※ 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제안서작성
방문 접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추진일차
제안서 접수 3-4월/5-7월
타당성 검토 5-6월/7-8월
온라인 투표 9월
위원회 심의 10월
예산 확정 12월

참여분야
공모사업 : 시가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
일반사업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문의 상담 | 홈페이지 안내 및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 031-760-2735

참여자격
광주시민 누구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스페인 사라고사 'ETOPIA Center' 방문

디지털 산업과 문화·예술 융합 통한 창작·창업 지원 공간 시찰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르네상스는 산업·예술 융합 토대 마련한 '메디치 가문'의 지원이 토대...반도체 중심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융합한 '용인르네상스' 실현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현지 시각) 스페인 사라고사(Zaragoza) 시 '에토피아 아트 테크놀로지 센터(Etopia Center for Art & Technology)'를 찾아 디지털 산업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현장을 둘러봤다.

스페인의 아라곤 지방에 위치한 사라고사는 인구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 중세시대 아라곤 왕국의 수도이자 문화 중심지였던 곳이다. 사라고사는 아라곤주 주도이며, 인구는 약 66만명이다.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사라고사 시의회와 사라고사 지식재단이 운영 중인 '에토피아 아트 테크놀로지 센터(Etopia Center for Art & Technology)'는 디지털 기술과 과학, 예술의 융합공간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곳은 과학과 예술, 창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라면 학생, 성인을 망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실험실과 창작·창업공간, 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등을 두루 갖춰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꾀한다. 외국인이나 다른 도시에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속도 제공과 있다.

이상일 시장, 이영선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대표단은 '에토피아 아트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마리나 아바디아 도시서비스 총책임자의 안내로 시설 곳곳을 살펴봤다.

이상일 시장은 "디지털기술과 문화 예술 등의 융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걸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라고사 에토피아가 시대적 흐름에 잘 맞춰 훌륭한

한 지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용인특례시도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발과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 시민의 문화예술적 꿈과 끼를 살리는 지원 역할을 하는 문화재단,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 발휘를 돕는 상상의 숲, 시민 창작을 지원하는 산업진흥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 기능의 융합을 강화해서 창조력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에토피아 아트 테크놀로지 센터의 창작 및 창업 지원을 보다 깊이 연구해서 용인에 오는 6월 문을 여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25일 저녁 이 시장은 스페인 도시들과의 교류에 많은 도움을 준 이태분 용인특례시 국제명예자문관 차에서 사라고사 지역 내의 도시인 우테보(Utebo)시의 마리아 헤수스 사리네나 시장 등과 식사를 함께하며 용인특례시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조성될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상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차 용인이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리네나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대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싶다"며 "앞으로 용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채널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수원시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애국계몽운동가로 조국 위해 평생 바쳐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는 한 독립운동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1874~1930) 선생이다. 동상 옆에 임면수 선생의 삶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있다.

"근대 수원을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대한제국기 삼일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 등 수원 지역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다... 신흥무관학교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부민단 결사로 독립항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다..."

임면수 선생은 독립군을 양성한 독립운동가이자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희사한 애국계몽운동가였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수원에 삼일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였다.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진행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의 삶을 소개한다.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임면수는 1874년 6월 10일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현 북수동)에서 태어났다. 북수동 팔부자 거리의 한 집이었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다. 1892년 전현석(1871~1932) 여사와 결혼했다. 임면수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전현석 여사는 다친 독립군을 치료해 주고, 그들의 식사를 하루에 몇 번씩 준비하는 등 헌신적인 내조로 남편을 지원했다.

1905년 4월 수원화성학교를 졸업하고, 상동청년학원에서 민족교육을 받았다. 1907년 대구에서 '대한제국정부가 일본에 진 빚을 백성들이 나서서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자 임면수는 김제구, 이하영 등과 함께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작성해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 각 군에 배포해 의연금을 모았다.

일찍이 근대 사상을 깨치고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던 임면수

는 나중석, 이하영 등 수원지역 유지들과 힘을 합쳐 삼일남학교와 삼일여학교를 설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09년에는 삼일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사립학교 설치 운동을 주도했고, 삼일여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를 희사했다. 삼일학교는 1909년 고등과 제1회 졸업생 20명을, 삼일여학교(현 매향중학교)는 1910년 제1회 졸업생 4명을 배출했다.

1910년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1912년 만주 서간도 환인현 횡도천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나섰다. 임면수는 수원에서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만주 지역 상황이 열악해지자 신흥무관학교 유지비와 군사 훈련비를 조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1912년 임면수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한인자치기구인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했고, 임면수는 부민단 결사대로 활동했다.

1910년대 중반에는 만주 통화현 합니하에 설립된 민족학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양성중학교는 학생들에게 한글, 한국사, 한국지리 등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간도 출생령 하자 해룡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임면수는 일본군 토벌대에 체포돼 중국에서 추방됐다. 1921년 길림 시내에 잠입해 활동하던 중 밀정의 고발로 체포됐고, 평양감옥에 압송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반신불수가 돼 고향 수원으로 돌아왔지만, 거처할 방조차 없었다.

몸은 망가졌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 건강이 다소 회복돼 거동할 수 있게 되자 1923년 건립된 아담스기념관 건축 공사감독을 맡았다. 현재 삼일중학교 교정 안에 있는 아담스기념관은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



아 지은 것이다. 임면수는 그토록 꿈꿨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0년 11월 29일 순국했다. 56세 되던 해였다.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됐던 임면수의 유골은 1964년 삼일상고 동산으로 옮겨졌고, 그를 기리는 '필동 임면수 선생 묘비'도 세웠다.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고, 현충원에 안장됐다. 묘비는 2015년 수원박물관 야외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69)씨는 "부유했지만 교육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며 "할아버지뿐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하며 행동한 독립운동가들을 국민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과 가까운 팔달로1가에 살고 있는 임병무씨는 중

홍 올림픽공원을 찾아 할아버지를 만난다. 얼굴이 무척이나 닳았다. 시인인 그는 최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시를 담은 시집 '세상살이 한 마디'를 펴냈다.

2015년 2월 학계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시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광복 70주년이었다던 2015년 8월 15일 올림픽공원에 임면수 선생의 동상을 세웠다.

제105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임면수 선생 동상을 참배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철학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코엑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서 여주 도자기 아름다움 홍보

경기도 여주시 관공제과 도예팀이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한다. (주)디자인하우스와 MBN, 코엑스가 주최하고 월간'행복'이 가독한 집'이 주관하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올해 29회째로 국내 최고, 최대의 박람회다. 국내외 최정상급 작가와 단체,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여주시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주 도자기 공동 브랜드 '나날_NANAL' 홍보관을 직접 운영하는 동시에 관내 도자 업체의 판매 부스 참가를 지원한다.

여주 도자기 공동 브랜드 '나날_NANAL'은 여주 도자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천년을 이어온 여주 도자기 고유의 가치와 정신에 현대적인

조형성, 동시대적 아름다움, 첨단 제조기법을 더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매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나날'에서 착안한 '나날_NANAL'은 여주 도자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순간, 그리고 쉼이 있어 만들어갈 아름다운 일상을 도자 제품들을 통해 제안한다.

이번 페어에는 '나날_NANAL'에 참여한 가마공방, 고려도자기, 그린포터리, 금사토기, 기억도자기, 놀터공방, 도유가, 빈달, 서라벌도예, 소소재, 엘림도예, 영락도기, 영주현도예, 용운도예, 임의섭도예작업장, 토가공방, 한울디자인, 흥내가마, 흙마루 등 여주시 도예 업체 19곳의 제품과 함께 생활도자기 브랜드 주식회사 이도와 협업해 개발 중인 '여주, 사계(Yeaju, the Four Seasons)' 7종 식기 세트 시제품, 지역 도예인이 협업해 제작한 '한글 의자'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또한 가마지기, 그루, 기억도자기,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 솔솔푸른솔, 엘르세라믹, 여토공방, 영주현도예 등 관내 8개 업체의 판매 부스 참가를 지원해 여주 도자산업 활성화와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강신봉, 김윤재, 김홍배, 문찬석, 이창욱 작가의 달항아리 작품과 함께 박재국, 성석진 작가의 벽걸이 도자 작품을 전시해 여주 도자기의 다양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여주시 홍보관은 문화행정가 안준형 큐레이터가 예술 감독을 맡아 '선과 색(Lines and Colors)'을 주제로 한국 고유의 곡선과 백색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조선백자 달항아리의 비정형적이지만 안정감을 주는 곡선, 고려청자의 장식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곡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미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인데 이를 홍보관 디자인에 반영했다. 다채로운 여주 도자기를 한데 아우르기 위해 백자의 순백색을 기반으로 연출했으며 여주 도자기를 사용하면서 저마다의 색으로 자유로이 물들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시의 주요 산업인 여주 도자기를 널리 알리고 신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도자기를 매개로 여주의 문화와 예술, 관광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람회와 제품 구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트윈도, 인스타그램에서도 다양한 '나날_NANAL'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E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실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화성시가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e-플랫폼 구축 및 디자인-패키지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외 홍보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분야는 팸플렛·리플렛 분야와 E플랫폼 구축 및 판로확대 분야로 각각 2개소와 5개소를 모집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팸플렛·리플렛 등 제작 지원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지원 ▲스마트스토어 디자인 개선 지원 ▲BI·CI 제작 지원 ▲시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등이다.

지원 자격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육성사업 출신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팸플렛·리플렛 분야는 다음달 8일 18시까지, E플랫폼 구축 및 판로 확대 분야는 3월 11일부터 4월 5일 18시까지다. 신청서류를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은 "온라인 판로채널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해

관내 기업 9개사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판로 채널 구축 및 개선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지원했으며

참여 기업을 위한 사전 진단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했다.

양시현/기자

2024 사회적경제 온라인판로지원 E-플랫폼구축 및 디자인패키지 개발지원사업

접수기간 [팸플렛·리플렛분야] 02.14(수) - 03.08(금) 18:00
[홈페이지형 블로그제작 및 3개분야] 03.11(월) - 04.05(금) 18:00

지원대상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법인·연도·창업지원 제외)

공모내용 온라인 홍보 팸플렛·리플렛 제작을 통한 관내 기업의 대외 홍보 경쟁력 제고지원 및 BI·CI, 제품 디자인 등 사업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제품 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내용 - 총 7개 기업선발, 총액지원 불가

지원분야 - 팸플렛·리플렛 분야: 기업 홍보용 리플렛 디자인 제작 지원
-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 개선, BI·CI 제작, 패키지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접수방법 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이메일접수(80599009@daum.net) (https://www.hssesc.or.kr/)

공모일정 *각 분야 당첨은 추후 발표되며 내역은 별도

신청주최: 2/14(수) - 3/8(금) 18:00
심사: 3/11(월) - 3/15(금) 18:00
당첨발령: 3/11(월) - 4/5(금) 18:00
시작: 2024. 3. - 6. 18:00
종료: 2024. 4. - 8. 18:00

문의사항 기본조성팀 *방문시: 월-금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Tel. 070-7731-9157
· E-mail : 80599009@daum.net

안산시 5개 대학 총장 한 자리에... 청년정책 활성화 논의

안산시에 소재를 둔 5개 대학 총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책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안산교육지원청,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서울예술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와 함께 '2024년 청년이 꿈꾸는 새로운 안산'을 주제로 안산시-교육청-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성황리에 첫 개최 됐던 '관내 5개 대학 연합

축제(유니온 페스티벌)'와 'e스포츠 페스티벌' 등 대학과의 협업 성공 사례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청년공간 조성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 교육기관, 관내 대학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발굴, 취업·창업, 정주

까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학, 교육기관 간 상호 유기적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와 현실이 반영된 실용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NAJU 나주시 NAJU CITY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한다

긴급치료병상·공공격리병상 확충 등 권역 완결형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초고령사회 질병 예방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질병관리청 5대 핵심과제인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에 맞춰 '2024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치료병상으로 5개 의료기관 76병상을, 공공격리병상으로 3개 의료원 53병상을 각각 확충하고 2024년 착공할 호남권 권역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완결형 의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전문인력 43명, 예비 방역인력 160명을 양성하고 감염병 관리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 추진해 유사시 상시 대응 인력 확보와 비상 동원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1만 2천 명, 결핵 발생이 높은 경로당 전수검진 9천 명,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2천 명을 실시하고 도내 의료기관 44개소와 연계해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를 적극 추진한다.

C형간염은 치료제는 있고 백신은 없어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가 매우

중요한 질병인 만큼, 올해 7개 군, 1만 4천 명을 검진하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 건강 보호와 질병 완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성인, 어린이에게 24종 80만 건을 추진하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700개소를 지정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의 잠재적 위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C형간염 퇴치사업 국고 지원(본인부담 치료비 20억) ▲코로나19 백신 국가필수 예방접종 포함(65세 이상 무료접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CRE) 감염증 감소 전략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전국 의료기관 8개소)에 전남도 지정 등을 정부(질병관리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부 사업을 감염병 관리 정책에 접목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상시비상체계 유지 및 감염병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종배/기자

흑두루미의 날 기념 '2024 순천만 흑두루미 워크숍' 개최

2009년부터 매년 2월 28일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 순천만 흑두루미 워크숍
2. 28.~ 2. 29.
순천만애코촌유스호스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생태마을길 123)

사전접수
신청기간: 2월 28일(수) 오후 18:00 ~ 2월 29일(목) 오후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신청처: 순천시 환경생물자원관 (061-770-2100) / 순천시 환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https://bit.ly/흑두루미워크숍신청)

구분	대상	비용	비고
일반	성인	10,000원	생물자원관 입장료 별도
	청소년(13~19세)	5,000원	생물자원관 입장료 별도
학생	초·중·고생	5,000원	생물자원관 입장료 별도
	대학생	10,000원	생물자원관 입장료 별도
단체	20명 이상	협약	생물자원관 입장료 별도
	50명 이상	협약	생물자원관 입장료 별도

주최: 순천시, 순천시 환경생물자원관, 순천시 환경생물자원관 협회, 순천시 환경생물자원관 연구회, 순천시 환경생물자원관 자원봉사자

순천시는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순천만 애코촌 유스호스텔과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2024 순천만 흑두루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시조(市鳥)인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2월 28일을 흑두루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순천시와 한국물새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고 국제두루미재단에서 후원한다.

국제두루미재단은 전 세계에 생존해 있는 15종의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1973년 미국에서 조직된 비정부 기구이다.

재단은 이번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며, 전 세계 흑두루미의 중요한 월동지로 부각된 순천만 사례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되어 멸종위기종 두루미류의 서식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은 지난해 1월 12일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장 업무협약 체결과 지역 간 흑두루미 서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첫 자리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박진영 연구부장(현, 한국조류학회 회장), 국가철새연구센터 김현중센터장,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대표 등 국내 조류학자와 지역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흑두루미 종과 서식지 분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둘째 날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여차만권역 흑두루미 모니터링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생존 개체수는 16,000 마리 18,000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순천만에서 7,200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6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19~20일과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스위트호텔에서 6급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팀제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6급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팀원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조직내 구성원들과의 원

활한 소통을 위한 소통, 리더십 교육과 공모사업대응, 기획력향상, 홍보기법, 이미지 컨설팅 등 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직무역량강화 과정으로 구성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격려로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그간의 공적생활을 뒤돌아 보면서 경직된 사고방식의 틀을 깨 줄 것과, 후배공무원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중간관리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팀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중간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직급별, 직무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함양시키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워크숍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리더십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청렴 초심 다잡기' 나주시,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 서약

2023년 종합청렴도 3등급 결과 분석, 올해 최상위권 진입 목표

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초심을 다잡았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안상현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약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을 목표로 간부공무원부터 선순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물러왔으나 차별화된 청렴 시책 추진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힘써오며 2023년 2등급이 오른 3등급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윤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서약식을 통해 '우월적 지위 및 권한남용 금지', '동료 간 상호 존중 배려에 따른 건장한

조직문화 조성', '부당업무 및 사적 지시 금지' 등을 다짐하고 서약했다.

또 2023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등급 상승을 위한 주요 시책 방향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올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상·하반기 청렴좌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서약식에 앞서 앞서 직원 1천여

명이 온라인 청렴 상시 자가학습을 통해 청렴 서약에 동참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3년 종합청렴도 3등급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선 8기 시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써왔던 소중한 결실"이라며 "청렴을 최우선으로 상호 배려와 존중 문화가 정착된 공직사회 조성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줄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전남 함평군은 26일 이상의 군수 주재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작년 9월 초 비전 사업 발표 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비전 사업들의 종합적인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사업은 각 세부 사업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행계획 및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첨단 신도시 조성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4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투입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벨리 조성사업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서 작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또한,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을 위한 연안 개발 사업들도 중앙부처 공모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도심 중추 활력을 확장하기 위한 각종 SOC 사업도 국가 및 광역 도로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116억원)과 공공승마장 조성사업(20억 원)

등 일부 사업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최근 선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전사업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은 함평의 대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다"고 밝히며, "추진 비전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이에 더하여 비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 사업들이 파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기자



강진 청자축제의 밤 빛낸 '향우 만찬' 성료

끈끈한 유대감 확인...군, 반값 관광 성공위한 협조 당부



지난 24일, 제52회 강진청자축제가 열리는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축제현장에서 '향우와 함께하는 청자의 밤' 만찬 행사가 열렸다.

만찬은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를 위한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막식에 참여한 출향인과 친교 시간을 갖는 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승남 국회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19개 향우회 4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강진청자축제에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향우들은 "지난해 첫 겨울 청자축제 이후 올해 축제자 열리는 날을 기다렸다"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전남도청 강진군향우회는 고향의 후배들을 위해 군민장학재단에 100만 원을 기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한 향우는 "고향을 방문하여 반가운

향우님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출향인들을 서로 마주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용수 재경향우회장은 "내 고향 강진은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에도 반값 가족여행 강진 및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등 긍정 홍보에 뜻을 모으자"고 의지를 내비쳤다.

강진원 군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향한 애정으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강진군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고향이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추진 중으로, 향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향우의 애향심과 군민의 열망으로 전 국민이 방문하는 강진의 기적을 함께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청자축제장을 방문한 향우들은 개막식에 참석한 후 강진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추윤호/기자

창의력 쑥쑥 키우는 전북도 상상문화센터에서 만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는 3월 7일 2024년 상상문화센터(체험교육 프로그램)를 개강한다.

올해 상상문화센터는 상·하반기에 '꼬꼬마 요리교실', '꼬꼬마 창작소' 등의 1일 과정, '나도 방송 크리에이터', '엄마랑 아가랑 요리조리' 등의 월간과정을 운영하고, 시기별로 여름방학특강(7~8월)과 김장특강(10~11월)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12주 과정 '도전! 키즈댄서'와 '어린이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도전! 키즈댄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의 K-POP 댄스를, '어린이 노래교실'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

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진을 섭외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상문화센터는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다음 달 강좌 접수를 시작하여 선착순 마감한다.

3월 과정 10개 프로그램은 2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 체험교육(상상문화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숙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즐거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도내 어린이들이 체험관에 방문하여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추억을 쌓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상문화센터 3월 과정 안내

● 접수기간 : 2024. 2. 19.(월) 09:00 ~ 강의시작 3일 전까지(선착순 마감)

구분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대상	당첨인원
1월 과정	꼬꼬마 요리교실	목	16:10	5세 이상(초등 1인 동반)	12명
	꼬꼬마 요리교실(2차)	토	10:40 / 14:00	어린이 포함 2~4인	107명
	꼬꼬마 창작소	토	10:40	5세 이상	12명
2월 과정	엄마랑 아가랑 요리조리	토	14:00	6세 이상	12명
	만물잡담	토	10:40	어린이 포함 2~4인	107명
	나도 방송 크리에이터	토	13:10	4세 이상(당첨자 1인 동반)	107명
3월 과정	꼬꼬마 요리교실(2차)	토	10:40	4세 이상(당첨자 1인 동반)	107명
	방송제작(2차)	토	16:10	5세 이상(당첨자 1인 동반)	107명
	나도 방송 크리에이터	토	14:00	5세 이상	4명
	아나운서	토	16:10	7세 이상	10명

- 강좌는 모두 선착순 마감이며, 모집 인원의 60% 미만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이유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4월부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12주 과정 '도전! 키즈댄서'와 '어린이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도전! 키즈댄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의 K-POP 댄스를, '어린이 노래교실'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

특히, 4월부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12주 과정 '도전! 키즈댄서'와 '어린이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도전! 키즈댄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의 K-POP 댄스를, '어린이 노래교실'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

신안군 "선생님의 사랑으로 바다에서 꿈을 이루겠습니다"

하의도 선생님과 제자들의 애뜻한 사연

신안군 하의면에서 지난 2월 24일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하의고등학교에 윤리 교과서 초임 발령을 받아 근무했던 하동연 선생님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쾌척하여 4.11톤급 해상호(연안 복합)를 매입해서 진수식을 가진 것이다.

이날 진수식은 하동연 선생님의 지인들과 어은 2구(피섬) 마을 주민과 지역단체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진수식은 천재지변을 피하고, 순조로운 조업이 되기를 기원하는 축문 낭독과 참석자들의 만사를 기원하는 축사로 진행됐다.

해성호의 공동선주인 김광권, 김남진 씨는 어릴 적부터 어업에 대한 열망이 높아 고향에 머물며, 마을어업과 잠

수로 생업에 종사했다. 맨손어업의 한계로 어선을 구매하고자 자금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접한 하동연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 퇴직금 2억 원을 선뜻 내주어 원하던 어업을 시작하게 됐다.

하동연 선생님은 "초임지인 하의면의 좋았던 추억과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보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김광권, 김남진 씨는 "항상 제자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어른이 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바다에서 꿈을 펼치게 도와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어업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지자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 선정

진도대파버거, 스마트마을방송체계, 소아청소년과 개설 등...다양한 행정혁신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는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국민체감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우수·보통·미흡 등 총 3등급으로 나눠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혁신평가 실시 이래 처음으로 82개의 군 단위 중 최종 9위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이용자 중심 공공 서비스 개선 등 균정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맥도날드와의 협업을 진도대파버거를 출시해 진도대파 판로를 확대하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이뤘다.

진도대파버거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

화로 진도군은 지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진도군의 각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 운영체제인 '진도군 공공앱'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을방송 청취가 가능한 '스마트마을방송' 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아청

소년과 신실과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은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오지·낙도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고 군민 모두가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6년 연속 선정

고금면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선정

완도군 고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4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6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금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누기 및 문화 혜택 기회 제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원 환경 정비 등 우

리 고장 가꾸기, 보이스 피싱 예방·안전 교육,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컴퓨터 활용 방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17년도 완도읍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고금면, 2021년은 보길면, 2022년은 신지면, 2023년은 고금면의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완도군 주민자치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 것은 그만큼 군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울/기자



구례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45등급 노후 경유차 275대 폐차 지원,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전남 구례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군은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120대, 4등급 150대, 지게차·굴착기 5대 등 총 27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연속으

로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공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총중량이 3.5톤 이상이면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만 가능하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금을 곱해 정해지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지원 신청은 구례군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접산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장흥 부산면, '정월 대보름' 전통 잇는 주민들

호계마을 별신제, 용두마을 당산제, 용반마을 붓제

장흥군 부산면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부산면 곳곳에서 세시 풍속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제322회를 맞는 '장흥 호계리 별신제(전남민속 문화재 제43호)'는 1702년께부터 이어져 온 전통행사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거의 다름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두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다.

새해 소원을 담은 달집 태우기를 하고, 마을 원로(유동종)가 마을 유래와 정월대보름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려주

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면 용반마을에서도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풍년을 기원하는 용반 을보 붓제를 지냈다.

올해는 특별히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염원하는 지신밟기 행사가 실시됐다.

황정숙 부산면장은 "마을의 무산 안녕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민속행사를 계승해 나가는 향우들과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지역의 아름다운 전통이 후대에 잘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목포시 무안군과 협의, 무안 노선 버스 운행 손실액 일부 10억 분담 결정

무안군, 손실액의 40% 수준인 연간 10억 분담, 현행 대비 35% 감축 운행 합의

목포시는 목포~무안 노선을 무안군에서 연 10억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현행 대비 35%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고, 목포~영암 노선은 영암군의 손실 분담 미결정에 따라 55%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작년 6월 시내버스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안군, 영암군과 시계의 노선 손실 분담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1월 양 군으로부터 미분담 입장을 통보받았었다.

이에 시는 67억에 달하는 시계의 노선 운행 손실액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전남도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현행 노선을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시는 양 군의 편의에 맞춰진 시계의 노선 구조와 2023년 기준 총 손실액 170억 중 무안·영암 노선에서 67억이 발생하고, 손실 분담 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효율화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역

상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양 군에 요청했다.

시는 무안군의 지역 상생을 위한 일부 분담 결정을 환영하며, 감축 운행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영암군의 손실 분담액 미결정이 전향적으로 신속히 바뀌길 기대하고 있으며, 현행 대비 45% 수준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영암군민과 시민의 불편 완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박종배/기자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손실액 분담 협의는 전남도 내 최초 사례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면서 "노선개편, 노선 공영화, 운영체계 전환으로 이어지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7월 정상 가동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해 3월 인수인계 계약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 조성면 수촌마을 성인문해교실 작품 전시회 개최

3월 6일까지, 한글 교실 수강 어르신 작품 등 60여 점 전시



보성군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율포해수욕장센터 1층 보성아트홀에서 조성면 수촌마을 주관으로 '수촌마을 성인문해교실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조성 수촌마을 '성인문해교육 한글 교실' 학습자들이 지난

해 1년 동안 학습하며 느낀 소감, 일화 등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탄소 중립 포스터 15여 점, 마을주민 여가 활동 작품 15여 점 등이 전시된다.

성인문해교육이란 사회적, 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을 배우는 교육이다.

보성군은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3회씩 강사가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는 '성인문해교육 한글 교실' 3개소를 운

영했다.

지난해 말 발교읍 옥전마을 12명, 노동면 대여마을 8명, 조성 수촌마을 10명으로 총 30명의 학습자가 수료했다.

또한, 2023년 전 주민이 참여할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 지도 만들기, 탄소중립 교육과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비전을 도출하고 소외 없는 공동체 활동을 펼쳐 '2023년 전남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최고령 학습자인 김점순(89) 씨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며 행복감을 느끼고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보성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주광중 이장은 "이번 문해 시화전에서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떨리는 손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만날 수 있다."라며 "우리 부모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감동적인 작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경상북도, MWC2024 경북 전시관 운영...경북 기술 세계시장에 알려

MWC 2024 경북기업 10개사 참여.. 지역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경상북도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24(MWC 2024)에 경상북도 전시관을 운영해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홍보하고 있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가 매년 2월 주최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 박람회로,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와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와 더불어 세계 3대 ICT 박람회로 꼽히는 행사다.

올해 MWC 2024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를 주제로 모바일.통신 외에도 AI, 네트워크 인프라, 디지털 혁신 등 각종 ICT 분야에서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선보여 차세대 디지털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MWC 2024에 경상북도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경북소재 중소.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했다.

이번 MWC 2024 경북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전시되는데, △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주)피앤씨솔루션(AR 글라스), (주)폴로랩(광학 스크린소자) △뷰티/헬스케어 분야는 (주)큐브세븐틴(임시치아 제작 솔루션), (주)원소프트다임(휴대용 체성분 분석기), (주)케이씨테크놀로지(피부 측정기)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에서는 (주)클로버스튜디오(드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주)딥파인(XR 공간정보 플랫폼)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분야는 (주)에스엘테크(드론 스테이션), (주)

브이스페이스 △안전시스템 분야에서는 (주)씨티에이(유해화학물질 누출감시 시스템)가 참가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북과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참여기업들에게 이번 MWC는 실질적인 수출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층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WC 개막 첫날 26일 로데슈바르츠(Rohde&Schwarz) 전시관에

서 경상북도는 로데슈바르츠社,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구현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기업들은 이번 MOU를 통해 5G-A(Advanced)·6G에 관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교류 △테스트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데슈바르츠는 무선통신 계측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32년 독일 뮌헨에서 시작한 전 세계 70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서울, 대전, 구미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MWC 2024 행사장을 방문한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장은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을 통해 MWC라는 국제무대에 경북의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번 MWC참여기업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국립대구과학관, 2024년 상반기 특별기획전 개최

'학교 속 사물의 역사'를 주제로 2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체험전시 운영

국립대구과학관은 2024년 상반기 특별기획전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24.2.20.~6.16.)'를 개최한다.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속 과학적 원리와 사물의 변천사를 통해 기술과 사회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변화했는지를 탐구하는 전시이다.

수도권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전시분야 협력사업 순회전시 일환으로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전시는 관람객이 사이언트리 탐험대가 되어 학교 속 사물의 역사를 탐구하는 컨셉으로 인트로와 3개의 존, 그리고 아웃트로로 구성된다.

인트로 '복도'에서는 기획의도와 함께 다양한 사물의 분해 모형 10점을 관찰할 수 있다.

1존 '운동장'에서는 과학경진대회에서 볼 수 있는 고무 동력기를 비롯해 수동 사이렌, 학교 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존 '교실'에서는 볼펜과 스테이플러의 확대 모형을 통해 작동원리를 알아

보고, 빔프로젝터의 전신인 매직랜턴 체험과 더불어 1970~80년대 추억의 교실을 만날 수 있다.

3존 '특별활동실'에서는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의 다양한 사물을 관람할 수 있다. 도서 휴게공간인 도서실에서 과거 대구 학교의 사진을 감상하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살펴볼 수 있다.

아웃트로에는 사이언트리 탐험대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과 체험형 수동 계수기가 마련됐다.

우상민 관장 직무대행은 "사소하고 평범했던 사물 속에서 창의적인 원리를 알아가며 일상생활 속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는 2024년 대구시민 주간을 맞이하여 해당 기간(2024.2.21.~28.) 동안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무료 개방한다.

전시 및 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올해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 대상 '부기' 캐릭터 교통카드 2만 장 무료 배포!

2024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2만1천9백1명 대상...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

부산시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기' 캐릭터 교통카드 2만 장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현금으로 탑승할 경우 종전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금 이용 시 시내버스는 400원, 도시철도 1구간 700원, 2구간 800원, 마을버스는 300원이다.

올해 시내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어린이는 2만1천9백1명으로,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를 위해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에 통해 부기 디자인의 교통카드를 배포한다.

시 교통카드 운영사인 (주)마이비는 교통카드 2만 장을 자체 제작해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홍보 캐릭터인 '부기'를 교통카드 디자인에 활용했다.

본부는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신청 학교에 한해 오는 3월 교통카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배부받은 교통카드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스마트폰 앱(이출충전소)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카드 소진 시까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6일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58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률은 96만4천 통행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퍼센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단별로는 시내버스 54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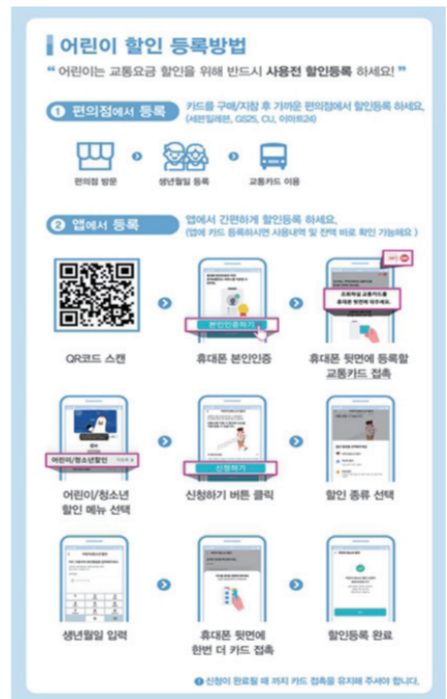
마을버스 54퍼센트(%) , 도시철도는 77퍼센트(%)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은 9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시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향상을 위해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23.3월)'의 일환으로 시행한 '어린이 요금 무료화'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어린이 교통카드 무료 배부를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더욱 친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

청송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농업인 53명을 대상으로 20일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청송군농기계임대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농업기계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계사용이 미숙한 귀농·귀촌인 및 고령 농업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작동원리 및 취급조작법, 점검정비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특히 임대해 주는 농기계 중 비교적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임대 횟수가 많은 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2기종 위주로 집중 교육했으며 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해당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기계 관련 재해는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향상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촌 여성의 '집에서 빛는 술 가양주 만들기'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024 전통주연구회 가양주 만들기 교육 개강



영양군은 2024년 2월 27일 관내 영양 전통주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전통 발효주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농촌 여성 전통주(발효주) 교육은 3월 19일까지 총4회 16시간에 걸쳐 전통주(가양주) 제조 이론 및 실습으로 여강연 선생님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뽕쌀)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빚고 발효시켜 우리 술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 술의 역사와 전통주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교육과 고두밥과 누룩을 비벼 넣어 가양주를 만들고 걸러서 청주를 만

드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조용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농촌여성들에게 건강한 전통식생활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봉화군-NH농협은행 제휴카드 기금 전달식

박현국 봉화군수, "지역과 군민의 이익에 힘쓰고 있는 NH농협은행에 감사, 기금은 군민복지 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는 27일 법인 제휴카드 약정에 따른 기금 2,000여만 원을 봉화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지난 한 해 동안 봉화군정 법인카드사용에 따른 기금 1,400만 원, 보조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600만 원 등 총 2,000여만 원이다.

이날 전달된 제휴카드 기금은 봉화군과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가 협약을

맺고 법인카드, 보조카드 사용금액의 0.5~1%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해 봉화군에 지원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역과 군민의 이익에 힘쓰고 있는 NH농협은행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달받은 기금은 군민복지 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제12회 국민권익의날 권익개선 유공기관' 수상

예천군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신문고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권익개선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예천군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결과 ▲처리기간 준수도 ▲민원접수 신속도 ▲민원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적정성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민원접수 신속도 및 민원처리 적정성은 만점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플랫폼

활용으로 민원 행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신문고 운영 부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평균 평균 72.05점 보다 9.31점 높은 81.36점을 획득하여 '나' 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중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등급은 '가'등급으로 전년도 '다'등급 대비 2단계 상승하여 전국 군부 2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부패방지, 민원-옹부조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4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대형산불 극복 2주기 관광이벤트

3월1일~3월31일 울진군 방문 관광객 대상



20%, 객실은 객실만 이용시 30,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왕피천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성류굴, 왕피천공원(곤충체험관, 안전체험관)에서는 울진군민 동일 할인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발매만 할인이 제공되며 단일시설 중복할인은 안되고 울진군민은 제외된다.

울진 관광 후기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울진군 여행 후 울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관광 후기 글을 게시하면 된다.

후기 내용에는 울진군 관광지 인증 사진 2장 이상, 3월 관내 사용 영수증 1장, 100자 이상 후기를 첨부해야 하며 본인 SNS에 울진군 홍보 인증 및 URL 주소 또한 게시하여 작성하면 된다.

후기 작성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우수 관광 후기 총 100명을 선정하여 덕구온천 숙박권과 죽변해안스카이라일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울진군 문화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생생한 자료로 활용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형산불 극복 2주기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관광 이벤트가 울진을 새롭게 찾아내 특색 있는 관광지 및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울진군 여행과 더불어 이벤트도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 가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울진군은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극복 2주기 관광지 할인 및 관광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월, 한 달간 진행되는 관광지 할인 및 관광 후기 이벤트는 지난 2022년 3월 울진 대형산불 발생 시 많은 곳에서 보내준 온정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생동감 넘치는 울진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관광지 할인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진행되며 관광지는 덕구온천, 왕피천케이블카, 울진아쿠아리움, 성류굴, 왕피천공원(곤충여행관, 안전체험관) 총 6개소이다.

덕구온천은 대운전장 25%, 스파

장문화/기자

영주시, "농지 구매, 상담 먼저 받으세요"

규정 몰라 불편 겪는 시민 없도록 홍보 및 안내 최선

경북 영주시는 농업경영과 농지전용(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 농지담당자에게 상담받기를 당부했다.

농지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지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지는 소유 제한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 소유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농지취득 행정절차가 달라진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목적으로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달리, 건축물(단독주택, 창고 등) 및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취득을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고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한다.

시는 규정을 몰라 불편 겪는 시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농지 구매와 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운 허가과장은 "영주시 허가과 행정 문턱은 없으며,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담당자에게 친절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문경시 '사귀테리(육가공)

전문가 심화 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26일부터 문경장터 약돌머리 네이버 밴드서 참가 접수, 3일간 집중 교육

사귀테리로 불리는 건조육, 육가공 사업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문경약육축산물명품화협의회는 오는 3월부터 육가공 분야 취업, 창업자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문경약육축산물 육가공 전문가 심화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약육축산물 육가공 전문가 심화과정'은 3월 23일, 30일, 4월 6일 토요일(총 3회)에 진행되며, 식육학개론을 비롯한 육가공 전문 지식 등 이론부터 전통 독일식 수제 햄과 소시지류인 잠봉, 레베케제, 바이스부어스트 등 대표적인 육가공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먹고 포장해가는 실습수업으로 구성했다.

추가적으로 '한국바이오토티튜'를 수료한 육가공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선도있게 준비했으며, 특히 잠봉을 활용한 샌드위치 제조와 시식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알차게 준비했다.

(* 본 심화과정은 향후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문경장터 약돌머

리"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심화 과정을 통해 문경약육 축산물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문경시가 축산물을 활용한 육가공의 선두주자가 되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심화과정뿐만 아니라 브랏부어스트, 초리조 소시지 등 기초 육가공 원데이클래스 및 프랑스 수제젤리 3종, 폭립, 수제육포, 구움과자 선물세트 등 다양한 원데이 특강까지 구성하여 3월에서 5월까지 매월 6회 ~ 8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총력! 저출생·지방소멸 극복한다!

안동의 생산·실증과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경상북도는 26일 포항시, 안동시와 도청 안민관 K창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씀, MOU 체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지역 내 바이오·백신 분야의 인적, 물질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포항시, 안동시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기술산업화 역량(R&D)과 생산·실증 분야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대응한다.

안동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백신 후보 물질 발굴),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후보물질비임상시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 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포항에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바

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연구인력을 갖춘 장점이 있다.

한편, 도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 정부' 비전 아래 도 내 지·산·학·연 협업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해 경상북도 주도 지방시대를 추진한다.

도는 혁신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원 규모 민간투자펀드 조성으로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를 지정했으며, 2023년 5월 바이오 분야를 추가 지정했다.



2023년 7월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중심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투자 활

성화와 저출산 대책 등을 강도 있게 추진 중이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할 것이다."며, "도는 구미 반도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이어 경북 바이오·백신 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해 3대 국가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팍팍' 돕는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 통해 고충, 통·번역, 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경주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상담센터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센터,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동천)에서 고충상담, 통·번역, 고용허가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도움 센터(성건), 경주 YMA(현곡), (사)외국인노동동행(외동)

을 방문해서는 노동·취업·법률·의료·생활 상담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센터(외동)는 거주 거주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외국인주민 사랑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리교실, 문화체험, 만들기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

고려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글교실, 학교 교과목 학습지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건

강한 가족생활도 돕는다.

매년 20가구를 선정, 가구 당 200만원의 여비를 지원해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을 추진한다.

월 3만3000원(취대교) 눈높이 학습지 비용도 지원한다.

또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연 100만원 한도 내 가정교사 학원수강비 또는 대학등록금 등의 실·납부액 교육지원비도 제공한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

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기사 발대식 개최

10개면 179개 오·벽지마을 누빌 행복택시 운행기사 34명 선발

했으며, 이날 발대식은 이번에 선발된 행복택시 기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마련했다.

* 와룡, 북후, 풍천, 일직, 임하, 길안, 임동, 예안, 도산, 녹전면

이날 행사에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기사임을 증명하는 기사증을 수여하며 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으며, 기사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민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오·벽지 지역을 골골이 누비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행복택시 기사를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해 불철 산불예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발대식 후 신규로 선발된 운행기사를 위해 앱 사용 방법과 기본적인 운행지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사들로부터 행복택시 운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기사는 3월 1일부터 배정된 지역에서 운행할 예정이며, 와룡, 북후, 예안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택시가 추가로 배치되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가 동일한 시간(08시~17시)에 운행하고 있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

지만, 3월 1일부터는 기사별로 07시부터 19시 사이에 운행 시작.종료 시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읍면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해 기사들이 대기하는 동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운행기사의 처우개선에 힘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의 행복택시 운영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금지와 자부심을 품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영덕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대면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기간이 작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비대면의 경우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에 적합한 농업인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통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334)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한 농업인 중에서도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0월까지 영덕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영유아 마음건강 돌보는 '비인지역량 발달 특강' 개최

소아정신과 최고권위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 강의로 진행

경북도는 26일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영유아 부모님들과 영유아 발달에 관심 있는 도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비인지역량 발달 특강'을 개최했다.

개최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부모들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높은 양육 의존도로 인해 영유아들의 언어·인지 발달문제가 초래되고, 학교 폭력, 따돌림 등 정신건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유아 양육가구에 대한 맞춤형 발달지원 서비스 도입이 시급해졌다.

이번 특강은 이런 사회적 여건 속에서 영유아의 심리·정서적인 성장을 돕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직원들과 부모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연세대 소아정신학과 신의진 교수 강의로 진행됐다.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0~3세(36개월 이전) 영유아기에는 인간의 동기, 노력, 의사소통, 상호작용, 유연성, 자기효능감 등 비인지 역량의 틀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발달문제에 대한 교육학적 뿐만 아니라 의학적(신경과학) 조기발견과 진단, 전문적 치료시설로의 연계프로세스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북도는 영유아 비인지역량 발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두뇌 역량강화 프로젝트로 "경북행복아이 키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도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신의진 교수는 "영유아기에 구성된

뇌 구조와 마음이 미래의 행복과 번영의 기본이 된다."면서 "영유아들을 위한 비인지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발달 관련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 차원에서 전문가가 '한 아이'를 꾸준히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힘든 일에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포용적인 어른으로 키워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 초청 특강

영유아기 비인지역량 발달 특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 초청 특강

신의진 교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

구미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하면 현금이 들어와요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3개 분야별 인센티브 제공

구미시는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3개 분야(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로 구분된다.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제도로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연 2회(6월·12월)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올해 총 720대 선착순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다.

참여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총 391대가 참여했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일상생활 속 녹색 실천(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10가지 항목에 따라 환경공단에서 매월 말 현금 또는 카드포인트로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전기·수도·가스) 분야를 시작으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자동차

인센티브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1680-2030

2020년 자동차(주행거리) 분야, 2022년에는 10개 실천 항목을 추가한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구미시는 2023년 기준(에너지+자동차 분야) 누적 세대 29,549세대와 이마트 등 2개 단지, 391대 차량이 참여한 결과 3억 9백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온실가스 6,267tco2이 감축돼 소나무 44,870그루의 식재효과를 거뒀다.

시는 전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 장소와 관계기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포인트제 집중 홍보로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사)부산국제건축제조조직위 2024 정기총회 개최

2.27. 11:00 벙스코 제2전시장 3층 회의실에서 열려



제11대 집행위원장으로 이성호 동아대학교 디자인환경대학 학장의 연임(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성호 동아대학교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국립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 공인건축사로 작품설계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젊은 건축인으로서, 작년 정기총회에서 보선으로 제10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작년 9월 벙스코에서 개최된 '2023부산국제건축제' 행사를 통해 ▲'부산-하펜시티 국제항구도시특별전' ▲'MVRDV 건축전'을 유치함으로써 국제 전시를 강화하고, ▲'Next Architects 4' ▲'젊은 건축가 파빌

리온작품전' 기획으로 부산지역의 젊은 건축가 양성에 힘쓰는 등 부산국제건축제의 도약과 건축문화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승인되면 임기는 2026년 2월까지 2년이며, 법인의 대표자로 조직위 업무를 통괄하게 된다.

한편, 조직위에서 올해 대표사업으로 추진하는 '2024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은 세계적 건축가그룹 MVRDV와 협업해 부산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건축디자인워크숍'은 국내외 건축학과 학생들과 교수, 건축가들이 부산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해내는 행사로, 올해에는 세계적 건축가그룹 MVRDV와 협업하여 진행한다.

MVRDV의 대표건축가 위니마스(Winy Maas)를 비롯한 소속 건축가들이 교사(투터)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지도를 맡는다.

오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부산소재 대학교에서 개최되며, 부산지역 대학생 및 젊은 건축가들이 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태/기자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해내는 행사로, 올해에는 세계적 건축가그룹 MVRDV와 협업하여 진행한다.

MVRDV의 대표건축가 위니마스(Winy Maas)를 비롯한 소속 건축가들이 교사(투터)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지도를 맡는다.

오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부산소재 대학교에서 개최되며, 부산지역 대학생 및 젊은 건축가들이 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자치경찰 3년의 성과 공유

박동균 상임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경찰 특별 세션에서

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숭실대학교 미래관에서 박동균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경찰 특별세션에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3년의 성과를 홍보하는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사회로 김성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윤태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강소영 건국대 교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박동균 상임위원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 이후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주요

성과를 실제 정책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먼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주거 안전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학생들의 등하곳길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상황을 손쉽게 신고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버스 승강장을 설치했으며, 대구강북경찰서의 셋별로 프로젝트는 지역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경찰청이 처음 시행한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 해결 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4년 9개월간 국비 23억 7천5백만 원을 포함해 최대 3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 및 치안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R&D 사업 추진으로 자치경찰과 과학치안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동균 상임위원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셉테드이다. 셉테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 대구시는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셉테드에 공을 들였다"면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셉테드에 이어서 과학치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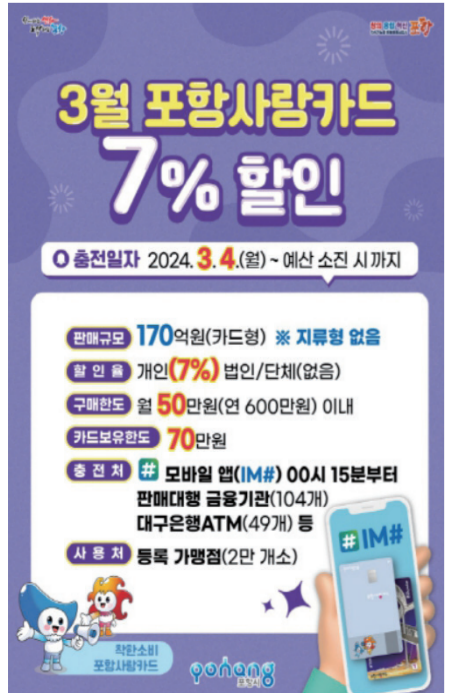
있도록 지역의 치안수요를 발굴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시, 3월 포항사랑카드 7% 상시 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개인 구매한도액 월 50만 원, 카드 보유한도액 70만 원



3월 포항사랑카드 7% 할인

0 충전일자 2024. 3. 4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타사카드 170억(카드당) ※ 지류형 없음

할인율 개인(7%) 법인/단체(없음)

구매한도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

카드보유한도 70만원

결제처 모바일 앱(IM#) 00시 15분부터 판매대행 금융기관(104개) 대구은행ATM(49개) 등

사용처 등록 가맹점(2만 개소)

포항시는 내달 4일부터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 170억 원을 발행해 3월 상시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을 위해 사용과 충전이 편리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정 유통도 방지할 수 있는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내달 4일부터 7% 할인판매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10% 할인판매시 월 40만 원이었던 포항사랑카드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카드 보유한도는 70만 원이다. 충전하기 전 카드 잔액을 모바일 앱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내달 4일 00시 15분부터, 104개소 판매대행점과 대구은행 ATM기(49개소)·셀프창구 등은 영업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

대구은행,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시 포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류형 판매는 없다.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누리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은 소비자들의 방문 증가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혜택이 있다.

특히 등록된 가맹점주가 모바일에서 BC QR for shop앱으로 신청한 QR키트를 설치한 후 사용자가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14%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또한 등록된 가맹점이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에서 shop 개설을 신청하면, 매장 소개부터 SNS 채널 연동을 통한 홍보와 구인 광고 등 다양한 무료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시청 경제노동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도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설 명절에 포항사랑상품권 420억 원을 10% 특별할인판매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지난 7년간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2조 365억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윤태용/기자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전람회의 그림 시리즈 II 윤성도 최복호 이춘호 NOM_展 3차 전시물들다개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제3전시실 완공기념 '전람회의 그림 시리즈' 두 번째 전시 '參 NOM_展(삼농전)_처엄히 물들다'를 오는 3월 5일부터 29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제1, 2,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본 전시는 3명 작가의 개성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대덕문화전당의 기획 전시 '삼인삼색(三人三色)전 레퍼토리의 2024년 버전으로 의료, 패션, 언론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40년 부터 60년의 경력을 갖춘 윤성도, 최복호, 이춘호, 3명의 전문가가 순수미술 작가로서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눈길을 끈다.

'參 NOM_展(삼농전)_처엄히 물들다'는 권대훈, 오명석, 박정민, 윤현미, 안경미 다섯 명의 객원 큐레이터이자 기획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한 세 작가가 현대미술이라는 하나의 공통적 면모 안에서 펼쳐는 예술적 개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일련의 규칙과 규율을 벗어나 틀에 박히지 않는 시선과 접근 방식을 통해 탄생한 윤성도, 최복호, 이춘호 작가의 작품 120여 점으로 채워진 본 전시는 신선한 감동과 탄성을 자아낼 것이다.

경북대학교 의과대 의학박사 출신의 윤성도 작가는 60여 년간 의료계에 종사하며 예술 활동을 병행해왔다.

8회의 개인전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으며 4권의 시집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 윤작가는 회화와 낙서의 경계, 그리고 모순의 한 위대한 밸런스를 지닌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패션디자이너로 더 알려진 최복호 작가는 50여 년의 패션계 경력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많은 관련분야 수상 이력을 자랑한다.

미술가로써 최작가는 불변이라 믿었던 전리기의 모호성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캔버스로 옮겨와 순수와 진리의 시대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이춘호 작가를 설명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저널리스트이자 뮤지션이자 여행작가인 이작가는 잘 설계되고 정제된 그림을 외면하고 손, 칼과 붓, 못, 철사, 나뭇가지 등으로 원하는 필감을 얻어내 '얼굴'에 대한 관점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페이스토리(FACETORY)라는 신조어를 제시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개성으로 뭉친 세 작가의 예술적 접근을 단순한 작품에서 그치지 않고 장르를 넘어서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표출하는 특별한 무대가 오는 3월 15일 '參 NOM_展(삼농전)_처엄히 물들다'오픈 행사에서 펼쳐진다.

영남이공대학교 모델테이너과 학생 모델들이 3인의 작가 작품이 담긴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선보이는 '티셔츠 패션 난장'과 지역의 첫 음식 전문기자이자 뮤지션, 여행작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춘호 작가의 특별 퍼포먼스, 영남이공대학교 모델테이너과 안경미 교수의 무용 등 다채로운 축하 무대는 전문예술가로서 대덕문화전당의 화장을 보여주겠다 한다.

이처럼 지역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대덕문화전당 제3전시실 완공기념 '전람회의 그림 시리즈 II' '參 NOM_展_처엄히 물들다'는 대덕문화전당 제1, 2, 3전시실에서 오는 3월 5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열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순수미술 작가인 윤성도, 최복호, 이춘호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參 NOM_展(삼농전)_처엄히 물들다' 전시를 통해 한계 없는 예술의 위대함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參 NOM_展 3차 전시물들다

2024. 3. 5. TUE - 29. FRI

Opening : 2024. 3. 15. FRI pm 4:30

대덕문화전당 제1·2·3 전시실

주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재단

YUN SEONGDO 윤성도

CHOI BOKHO 최복호

LEE CHUNHO 이춘호

서초구, 30~50대 구민 누구나 평생학습비 2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400여 명의 구민이 배우처로 자격증 취득 강의 등 수강... 95% 참여자 '만족'

서울 서초구는 3050세대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고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연간 20만원의 평생학습비를 지원하는 '2024 서초형 평생교육배우처'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서초형 평생교육배우처'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부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가·지역 평생교육배우처 시스템'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400여 명의 구민들이 평생교육배우처를 신청해 자기개발, 기술습득 및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 자격증 취득 강의 등을 수강했다. 구에서 올해 1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및 주변에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올해 구는 작년 대비 사업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렸다. 작년에는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2월까지 6개월의 배우처 이용기간이 짧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 참여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원하는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신청 기간을 작년 2주에서 올해 한 달 간으로 대폭 늘리고 신청 기간동안 소식지, 구청 누리집,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지역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고, 신청은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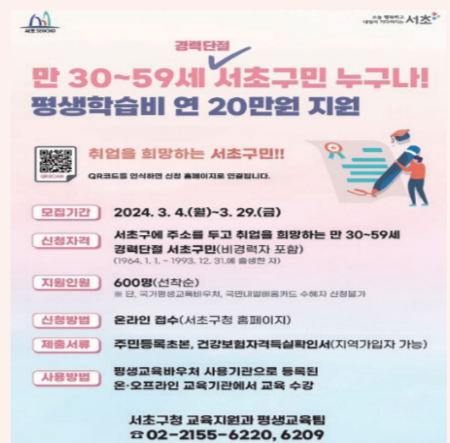
지급대상자는 신청 자격요건, 제외대상 여부 등을 검증해 4월 초 선정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20만원의 평생교육배우처는 배우처 카드로 제공되며 서초구 평생학습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뿐 아니라 배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가맹기관 2,891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선수 서초구청장은 "서초형 평생교육배우처가 중장년층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영등포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집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관내 어린이집 최소 100개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예정

영등포구가 오는 3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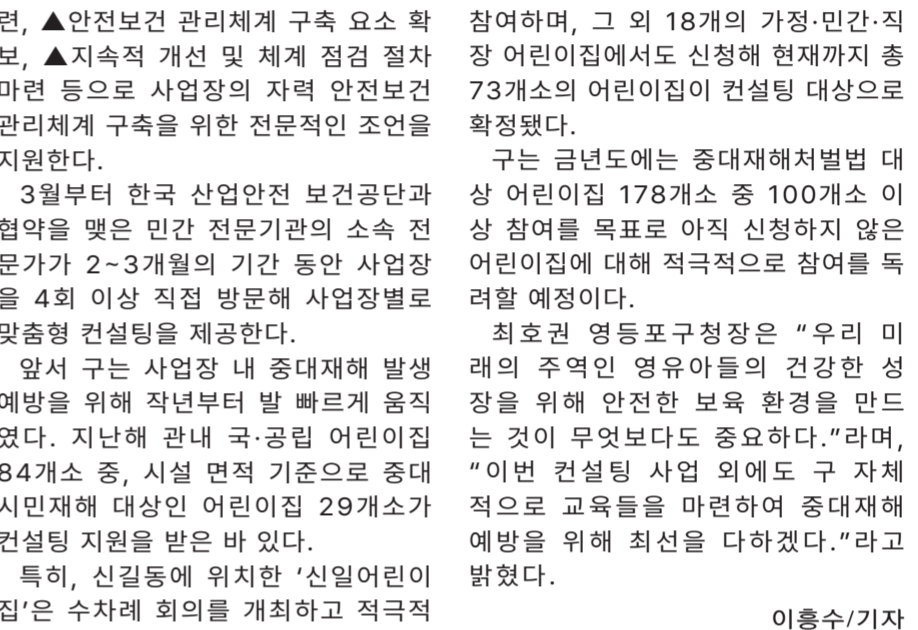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구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안전보건정보 공개 및 참여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요소 확보, ▲지속적 개선 및 체계 점검 절차 마련 등으로 사업장의 자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지원한다.

구는 금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어린이집 178개소 중 100개소 이상 참여를 목표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컨설팅 사업 외에도 구 자체적으로 교육들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흥수/기자



성동구, 해외지사화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오는 3월 8일까지 해외지사화, 전시·박람회,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분야에 총 30개 중소기업 신청받아

서울 성동구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해외지사화사업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해외지사화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해외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하여 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 분석, 수요조사, 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상품 및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

으로,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여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등 세 분야로 나누어 모집한다. 지원 규모는 각 분야마다 10개 기업 내외로 총 30개 업체이다.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에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에는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분야에 선정된 기업에는 홈페이지 및 홍보 안내물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세 분야 모두 기업당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되나, 해외지사화사업은 신청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판로개척 지원사업(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은 기업들의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3개 분야 총 31개 기업에 5,99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성동구 소재의 중소기업이며, 분야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업의 사업 준비도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미 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차순위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성동구가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 QR코드 활용한 '민원서식 작성예시' 제공



서울 중구에서는 민원 신청서 작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8종에 대한

작성예시 QR코드를 제작하여 15개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포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민

원 서식의 작성예시가 뜬다. 이를 참고하면 서류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현재 출생·사망·혼인신고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생활과 밀접한 서류 5종과 여권신청서(일반 및 미성년), 정보공개청구신청서 등 작성 방법이 복잡한 서류 3종의 작성예시가 게시되어 있다.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면 글씨를 크게 볼 수도 있다. 민원실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중구 홈페이지에도 QR코드를 게시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수기로

작성한 작성예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방문객이 많아 복제거리는 민원실에서는 이를 보고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 양식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서식 작성예시 QR코드 도입'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증가하고 민원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원 서식 이용 통계를 활용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강원도, '제50회 신사임당상' 수상후보자 공모

3월 22일까지 시장·군수 및 도단위 기관·단체장으로부터 후보자 접수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제50회 신사임당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했거나 추천 기준일 현재 도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문화·예술·전문분야 또는 그 밖의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 향상 및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추천기한은 오는 3월 22일이며, 시장·군수 및 도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관련 상세 내용은 도청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후보자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5월 22일 강릉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신사임당상'은 대한민국 여성의 표상인 신사임당을 기리기 위해 1975년 4개 부문(대상, 예능상, 부덕상, 충부상)의 시상 시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987년부터는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상의 영예성을 높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80명이 수상했다.

강호철/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고품격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한다"

아산 예술의전당, "주목적·다기능 추진" 전문가 한목소리

아산시는 지난 26일 '아산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박경귀 시장과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가 제시한 예술의전당 기본계획(안), 운영프로그램 계획(안), 건축 및 공간 구성(안), 인근 사업 연계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공연장 건축설계, 공연 기획, 음향, 지역 예술계 등 국내 최고의 각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사업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아산 예술의전당을 '다목적 시설'로 건립하는 것보다, '주목적·다기능'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목적으로 '다목적 시설'을 건립했지만, 어느 한 장르의 공연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 아산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목적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남돈 위원(삼선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은 공연장의 기능과 비타인스테이션 등 부대시설을 찾는 일반사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아산 예술의전당 역시 늘 사람이 모이고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고, 개방성을 담보하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영수 위원(LG아트센터 운영팀장) 역시 "비용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목적 기능을 충족하려

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는 적을 수 있다"며 "한 번에 건축이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동참했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주목적·다기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김진영 위원(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합적인 기능은 시설 규모가 커져 건립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0석 규모에 대한 당위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들은 ▲공연팀·관람객 주차동선 이원화 ▲주변 공연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대관수의 등재정계획 현실화 ▲공연시설 백스테이지 여유 공간 확보 등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아산 예술의전당을 짓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건립 때까지 많은 관심과 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며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고품격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문화공원(권곡동 387-3번지 일원) 내에 총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대공연장 1,200석 등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4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로 시작,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원호/기자

"대통령, 충남 현안 확실한 뒷받침 약속"

김태흠 지사, 26일 '대통령 민생토론회' 결과·후속 조치 등 설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모범사례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가진 이번 민생토론회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지사는 "26일 민생토론회는 충남의 현안 문제들을 총망라해 논의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자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음을 통해 "충남의 주요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거론하며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산만권 베이밸리 개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아산만을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경비행기 MRO산업 육성, 공항형 자유무역지대 조성, 무인항공기 양산 기업 유치 등 도가 서산공항과 연계해 구상한 항공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세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천안·홍성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천안·홍성을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우리 도는 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당진으로 유치한 기업혁신파크와 지난 1월 승인받은 논산 국방특화산단, 지난해 논산에 유치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최근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에 오른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등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표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SK렌터카가 3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고,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 개발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보건소, 주택단지, 녹지 조성 등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우선 시작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정부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업혁신파크가 신속히 추진되면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논산 국방산단은 2026년 신속 착공을 약속 받았으며 "도가 추진 중인 국방산단 연계 산단 100만 평 이상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는 로봇체계시험시설과 AI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 예정이고,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지난 23일 사타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밝히며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조성되면 대한항공, 현대차 등 대형 방산기업이 집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직접 건의한 SOC 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계획수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드렸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충남에 8개를 내걸었는데 지켜진 게 거의 없으나, 윤 대통령은 약속한 15개 지역공약 중 7개를 신속히 이행해 주셨다"라고 강조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복원시키겠다고



했으며, 산업부는 신청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답한 만큼, 우리 도는 최대한 조속히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에 대한 적극 지원도 약속 받았으며 "계획대로 2027년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원 승인,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내포캠퍼스 설립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지역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한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며, 확실한 사업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모범 사례"라며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봉 화 군**

교육격차 해소 위해 서울시-우리금융미래재단 민관협력...서울러너 우수 학생에 연 200만 원 학습비 지원

여름방학 진로캠프, 집중학습캠프 등 참여를 통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성장 지원

서울시의 교육 사다리 복원사업인 '서울러너'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손을 잡았다.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러너' 학생 중 학습의지가 강한 우수 학생에게 심층적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우리미래 서울러너'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러너'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온라인 학습콘텐츠 무료 이용 및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전체 그룹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은 14일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우리미래 서울러너'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우리미래 서울러너' 참여자에게 서울러너 학습콘텐츠와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우리미래 서울러너'는 서울러너 회원 중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대상이며,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국.영

수 C등급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러너 가입 여부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신규가입자 신청 가능)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앞으로의 목표와 진로계획, 끈기와 열정을 발휘한 성취 경험, 학습지원비 사용계획 등과 함께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참여의지, 진로계획, 자기성취경험, 자기관리역량 등으로 심사 결과는 개별 연락 및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면 서울러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지원에 더해 오프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인 ▲여름방학 진로캠프 ▲겨울방학 집중학습캠프 ▲학기 중 학습비용 지원(교재비 등 반기별 100만 원 이내) 등 다양한 심층 학습지원이 내년 2월까지 제공된다.

진로캠프는 국내 유수의 대학과 연계해 인문사회/창의과학/진로적성 분야에 대한 교육과 체험학습이 2주간 제공되고, 집중학습캠프는 겨울방학 5주간 숙식을 포함한 학습 환경과 부족한 영역에 대한 특별강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학습비용은 우리카드사와 협력을 통해 서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어 학습용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 단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기간 제공되는 진로·학습



캠프는 높은 동기 부여를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선발이 완료되면 4월 중 '우리미래 서울러너' 출범식을 개최하여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최종 선발된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구중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러너의 가치에 공감해 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민관협력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서울러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안산시, 의료공백 대비 재대본 가동... 보건소는 연장 운영

보건소 평일 진료 시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보건의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안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일자: 23일, 이하 재대본)를 통한 대응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재대본은 이민근 시장이 본부장을 맡고 ▲상황총괄반 ▲수상복구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점검지원반 ▲행정지원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6개 실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재대본은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산공단을 비롯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행정직·보건직공무원 인력을 파견해 핫라인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도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실 운영을 2시간씩 연장하고, 지역의료기관 간의 비상 진료 체계 핫라인을 유지하

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 연장 운영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연장된 운영시간 동안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내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상록수보건소로, 침·시술 등 한방진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단원보건소로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방문하면 된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 및 보건소 진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이민근 시장 주재로 경기남부경찰청·단원경찰서·상록경찰서·안산소방서와 함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일사천리 민생안전 회의'를 개최하고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재가동함으로써 대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영암군, 결혼에서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명에게 최대 2억6,200만원 지원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영암 아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출산장려금'과 '가족 돌봄'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역점 시책.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92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 따라 영암군은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영암군은 아동정책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2023년 12월 현재, 영암군 인구 52,493명 중 아동·청소년은 9,323명으로 17%에 달한다. 지난해 영암군의 출생아 수는 193명으로 2022년 178명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영암군은 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인구 구조를 바꾸는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을 세웠다. 동시에 지역 실정과 군민의 요구에 맞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마련했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업을 7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결혼 분야는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도 추진 예정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0% 지원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에게는 이미 한글교실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임신 분야에서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에게는 영양제 보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임신·출산 교실 운영,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래인가구 임신부에게는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이 홈헬퍼들은 장애인 자녀의 양육과 가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부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미래세대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임신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셋째, 출산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토대를 구축한다.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나선 예정이다. 이미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이고, 가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육아 분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골자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0~12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형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해 공직자들의 양육을 돕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육아환경 조성 분야는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영암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여기에 야간돌봄까지 병행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족복합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12세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읍·연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관찰과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생태놀이터도 새롭게 조성한다. 상대포공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영암공원도 놀이공간과 주민휴식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암읍 교동리에는 초등학교 등학교 자전거림도 올해 생기고, 영암형 스킨존인 '남생이존'이 곳곳에 생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영암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넓혀 청소년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섯째,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열어가 수 있게 돕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 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학 맞춤형 입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은 여기에 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교과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진로와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신축될 영암공공도서관은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조흔현 바둑교실과 생태지구학교도 열 계획이다. 올해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찾아가는 씨름교실'도 계획되었다.

'영암 미래인재 50인 프로젝트'는 각 분야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발굴해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교사·지역민이 교육공동체를 가꿔갈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지역농산물 급·간식비에 더해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의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중등 40만원, 고등 48만원의 청소년 문화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의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일곱째, 경력단절 여성 활동지원 분야는 능력개발과 육아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정현/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입 진학자료 6종 보급

3월 개학에 맞추어 2025 대입 정보 안내 달력 등 온오프라인 배부

경북교육청은 3월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학교에 '2025 대입에 대한 진학 정보와 사례집'을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산하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자료는 △2025 대입 진학 정보 동영상 △학년 초 입시설명회용 PPT △2024학년도 대입 정보 안내 달력 △2024학년도 고 1, 2, 3학년용 2025 대입 정보 포스터 4종 △2024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집 △2024 수시 합격·불합격 검색프로그램 등 총 6종이다.

2024학년도 대입 진학 정보 동영상은 2025 대입의 이해와 진학지도 방향, 2024학년도 대입 주요 대학 전형 분석과 저 경력 고 3 담임 대상 진학지도 연수를 주제로 제작되어 3월 초 경북교육청 운영 유튜브인 '맛볼맛볼 TV'에 탑재된다.

입시설명회용 PPT는 단위 학교에서 학년 초 입시설명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3월 초에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입 정보 안내 달력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수능모의고사, 영어 듣기, 수능시험 등 시험·대입전형 일정과 시를 활용한 응원 문구, 대입 정보, 추천도서, 권역별 상설상담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제작된 달력은 신학기 시작 전에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배부되어 교실과 교무실에 게시된다.

고 1, 2, 3학년용 2025 대입 정보 포스터 4종은 고 1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로드맵, 고 2 학생들을 위한 친절한 2026 대입 정보, 고 3 수험생을 위한 친절한 2025 대입 정보가 담긴 포스터 3종과 한눈에 보는 2024학년도 포

스터 1종으로 구성됐으며, 3월 초에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전 교실에 게시한다.

2024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집은 경북 도내 79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76개 대학, 447건의 합격 사례들을 수집하여 제작했다.

합격생들의 학생부 기재 사항 요약과 지원대학의 합격·불합격 결과 등을 함께 실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학생부 설계와 대학지원에 도움을 줄 합격사례집은 3월 초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된다.

2024 수시 합격·불합격 검색프로그램은 학기 초 진학 상담을 위해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 수시지원 결과 전송 파일을 자료로 하여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가 개발·제작했으며, 3월 초 각 학교로 보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진로·진학지도를 공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입 자료집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합동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월), 신학기 개학 이전 학교 교육환경을 사전에 보호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2024년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경주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림초등학교 및 계림중학교, 계림고등학교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학교 주변 PC방과 편의점을 방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

지, 신분증 확인 절차,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 안내 등 준수 사항을 홍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경주교육지원청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유해환경 합동점검으로 학교 주변 유해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신학기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경북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소통·공감 회의 개최

2023년도 업무 성과와 개선, 2024년도 현안 과제 공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6일 본청 행복지원동 4층 연화관에서 도내 기술직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경북교육시설 업무 성과와 업무추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2024년도 현안 과제를 공유·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교육부 적극 행정 최우

수 사례(학교시설 수선 주기 기준 마련) △공사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결과 △관급자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성과 보고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 추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설 사업 신속 집행과 추경예산 편성 방향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설계 안정성 검토 △늘봄학교 시설 지원 등 현안

과제 해결과 실무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시설 수선 주기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우리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시설을 구축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봉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실시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교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신속, 정확한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역할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봉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전담조사관 2명을 위촉하고 학교에 대한 이해, 조사 시 면

담 기법과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 실습 위주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사례회의 운영 및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단 운영 등 학교폭력에 관한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봉화교육지원청 권혜자 교육장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신장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성주교육지원청, 행복한 학교 실현은 학교폭력예방 부터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월), 성주교육지원청 다관관 시청각실에서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46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에 노력하고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방법 주요 개정 사항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기능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조사시 학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새로운 학교폭력제로

센터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변경되는 사안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교감 선생님들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채종원 교육장은 "성주 관내 학생들이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라고 격려했다.

김동현/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규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서울시,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 컨소시엄 '사이버밸리'와 협력... 유럽시장 진출 시동

서울 AI 허브-사이버밸리-서울대AI연구원 3자 업무협약...아시아 연구기관 최초 공식협약



서울시가 유럽 최대 인공지능 연구 컨소시엄으로 꼽히는 '사이버밸리(Cyber Valley)'와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스케일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딥러닝 분야 글로벌 연구기관인 캐나다 '밀라(MILA) AI 연구소'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지역의 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밸리 본사(독일 튀빙겐)에서 '서울 AI 허브-사이버밸리-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3자 간 업무협약(MOU)으로 진행됐다.

사이버밸리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기초학문 분야의 혁신과 저명한 과학자 육성을 위해 2016년에 설립됐다. 자연과학·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튀빙겐·슈투트가르트 지역에 있는 대학 소속 85명의 연구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밸리를 이끌어가는 주된 기관으로 막스 플랑크 지능형 시스템연구소·슈투트가르트 대학교·튀빙겐 대학교 등의 학술·연구기관, 아마존·BMW 그룹·로버트 보쉬 등의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산업 기관이 포함돼 있어 유럽뿐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 생태계 지역 중 하나이다. 이들 연계된 산업·학계·재단 등 전체 기관에서 사이버밸리에 투자한 금액은 현재까지 한화 약 2,218억원에 이른다.

'서울 AI 허브'는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고급인재 양성 ▲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을 통틀어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최초의 전문 지원시설이다.

'서울 AI 허브'는 컨설팅·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간 360개 이상의 기업을 육성했다.

또한, '서울 AI 허브'가 육성한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3,560억원, 누적 투자유치액은 3,670억원을 달성했고, 소속기업이 CES에서 최고혁신상(2개)을 포함하여 16개(누적)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 AI 허브와 사이버밸리,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상호보유한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투자연계 ▲인공지능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상호 커뮤니티 자원 및 공간 지원·교류 ▲상호 기관 보유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인공지능

분야 최신 기술과 동향 공유 등에 협력한다.

특히 서울 AI 허브가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에는 사이버밸리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네트워킹을 통해 유럽 내 다양한 투자 수요처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베카 C. 라이시(Rebecca C. Reisch) 사이버밸리 디렉터는 "사이버밸리 리가 아시아 지역의 인공지능 연구기관과 첫 번째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상호 보완한 투자 네트워크의 공유·연계 및 시장진출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타 산업 분야의 기초산업이 되는 '인공지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AI 허브'를 거점으로 AI 기술문제 해결 및 AI+X 융·복합 인재양성 등 경쟁력 있는 산.학.연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북미의 밀라 연구소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유럽 지역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문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주)DN솔루션즈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투자 유치

2.26. 11:10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양해각서 체결... 국내 1위, 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 알려진 (주)DN솔루션즈와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부산 신설 약속

올해 투자유치 6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한 부산시가 지난 6일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에 이어 공작기계의 대규모 투자를 연속으로 유치하며, 글로벌 허브도시로 한발 더 나아간다.

시는 26일 오전 11시 1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글로벌 공작기계 전문 제조기업인 (주)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와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 시장, 김상현 DN그룹 회장, 김원중 DN솔루션즈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DN솔루션즈는 DN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국내 1위, 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 탁월한 연구개발(R&D)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76년 공장 준공 이래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공작기계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22년 사명을 두산공작기계에서 DN솔루션즈로 변경하고 사업다각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글로벌 제조 혁신기업'으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되면, DN솔루션즈는 2025년까지 공작기계의 고정밀 핵심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최첨단 생산 기지인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를 부산에 건립한다.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약 1만 평 규모의 부지에 1천7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하며, 연구개발, 생산, 경영지원 등 이곳에서 근무할 다양한 분야의 인력 3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특히, DN솔루션즈는 매년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등 국립대를 비롯한 22개의 부산 지역대학에서 배출되는 풍부한 전문인력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의 입지 우수성 등 고려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업의 투자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본사(경남 창원)를 방문해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맞춤형 입지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규사업의 시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이번 성과를 내는 데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신설 투자로 DN솔루션즈는 고정밀 핵심 유닛과 부품을 최첨단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함으로써 품질, 가격 등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수요(니즈)를 더욱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더욱 밀착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이 강화돼 부산 지역업체의 경쟁력 또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중 DN솔루션즈 대표이사는 "DN솔루션즈가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설립을 부산시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지역의 인재 채용은 물론 지역기업들과 상생협력 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DN솔루션즈가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부산의 계속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자, 부산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DN솔루션즈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부산 투자를 결정해 줘서 감사드린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DN솔루션즈가 견인자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울산시-산업부 "투자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 힘모은다"

일, '지역경제정책 울산 소통마당' 개최 산업부 지역정책 소개, 울산시 현안 및 기업 애로 건의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정책 울산 소통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최근 발표된 산업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울산시 현안 등 현장의견 청취 및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산업단지 규제혁신 방안 등 지역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또 울산시는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기회발전특구 특전(인센티브) 확대 △이차전지산업 세제감면 등을 건의한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주), 에쓰오일(주) 등 지역 대규모 투자기업 관계자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 일원의 첨단투자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산업단지 내 임시 주차장·야적장 확보 문제 등 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자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증가로 이



어져야 하는 만큼,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한편,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은 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은 여덟 번째로 개최된다.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